

\* too tired

\* many fast but  
doesn't get to the point

### Question 6 (15 marks)

\* teach learning  
in class without students out  
a computer  
technology, and  
textbooks are allowed

Year 2012 HSC - Heritage Korean  
Band 4H

Sample 1 Question 6

### Text 7 – Blog posting 1

요즘 학교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세계 청소년 환경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환경 문제를 공부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화상 발표를 한다. 이것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인 내가 혼자 가르쳐주는 수업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실감이 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가상 체험을 하고, 환경 시뮬레이션 게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웹에서 토론하는 수업도 좋아한다. 수업 시간에 늘 조용하던 학생들도 많이 활기차졌고, 자기 의견을 겁내지 않고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비슷한 나이의 세계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것도 좋은 점 같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프로젝트 위키 사이트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학생 중 몇몇은 내년에 대학에 가서도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더 많아져서 많은 학생이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 Text 8 – Blog posting 2

학교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교실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있고, 전자 칠판까지 생겼다. 수업 시간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기본이다.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자. 그 세대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학교에 다녔다. 교실에는 책상, 의자, 칠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으로 충분했다. 책을 통해서 배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같은 반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하고 뛰어놀았다.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공부하고도 다들 훌륭한 어른이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은 꼭 필요할까? 온라인 수업을 할 때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쓸 때가 더 많다. 게다가 온라인이다 보니 수업에 집중을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나는 이런 수업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업이 제일 좋고 편하다.

Question 6 continues on page 13

## Question 6 (continued)

6. 두 텍스트에 나온 내용을 이용하여 청소년 잡지에 보낼 글을 쓰세요. 글의 제목은 “이상적인 미래의 수업”입니다. 375자 정도의 한국어로 쓰세요. 15

Using the information from both texts, write an article for a youth magazine entitled, ‘The ideal classroom of the future’. Write approximately 375 ja in KOREAN.

### 이상적인 미래의 수업.

이상적인 미래의 수업과 같은 ~~국장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수업이 마음에 들까요? 혹시 지금까지 테크놀로지를 사용 못하는 눈 ~~을~~ 계시나요? 요즘세대는 ~~한국~~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서로의 공부에 대한 의견, ~~한국~~ 지식, 등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성적과 달라졌다고 한다. 예전들어 수업시간에 테크놀로지로 학생들의 활동에 짚고거나, 자신의 역할을 겸내지 않고 탐험하거나, 등등을 볼수가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인가? 월에서 토론하는 수업은 좋아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미래의 수업이 ~~아니라고~~ 될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오직 사랑과 사랑의 의견을 토론하고 좋건 나쁘건, 모든 정보를 얻을수가 있어서이다. 이것은 똑바로 되는것이 아니라.  
 수업은, 컴퓨터나, 웹 브라우저 등으로 보우는 것이 아니다. 수업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토론하고 선생님의 지식을 나누는데 주며 아이들이 보우는 것이 수업이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반대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있다.  
 더 범적이 된다면 세상에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없어~~ 있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땐날 우리 부모님의 시대를 생각해보자, 지금과는 달리,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 학교에 다녔다. ~~일정을 정하고~~ 우리에게 고상에는 책상, 의자, 칠판만 있겠다고 한다. 하지만 저역 중화한 것은, ~~즉~~ 선생님과 학생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배우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미래의 수업이

Question 6 continues on page 14

## 국립

Question 6 (continued)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부끄러운 세대 고령 / 다른 품종은 예를 드는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의 후손을 위해, 우리 의 ~~나쁜~~ 좋은 품종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대상적인 수업을 지금부터 이끌어 이수하기로 미래의  
수업이 성공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각종 여러 블로그도 우리의 미래의 학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테크놀로지 ~~방법~~ 선생님께 구름과 올리고, 책으로 공부합시다!

감사

End of Section 1